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왜 주유소 가격은 오르나

정유사 공급가만 통제… 유통비용·시차 반영 등 영향

4차 휘발유·경유 동결에도 광주·전남 '2000원 턱밑'
체감 가격 인하 구조적 한계 지적…시민 혼란만 가중

4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된 가운데 광주지역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965원, 경유 1945원에 판매되고 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매번 가격 고시 때마다 실제 주유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류 가격은 이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최고가격제가 정유사 공급가격에만 적용되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통비용이 반영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까지는 직접 통제하지 못해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0시를 기해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공급가격 상한을 유지했다. 앞서 1차 시행 이후 2차에서 상한을 높인 뒤 3차와 4차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도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주유소 판매가격과는 적용 대상이 달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괴리는 존재했다.

지난 3월 13일 1차 최고가격이 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설정됐던 당시에도 광주·전남 주유소 가격은 이미 1700원대 후반에서 1800원대 초반 수준을 형성하며 정책 가격을 웃도는 흐름을 보였다. 공급가격은 제한됐지만 유통단계 가격까지 통제하지 못하면서 체감 가격과의 간극이 시작된 것이다.

2차(3월 27일)에서는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상한이 상향됐지만 현장 체감 가격과의 괴리는 해소되지 않았다. 광주·전남 주유소 가격은 1800원대 후반에서 19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며 정책 가격에 근접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이를 웃도는 흐름을 이어갔다.

3차(4월 10일)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본격 반영되면서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졌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있었던 2월 28일 이후 광주·전남 주유소 평균 가격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단기간에 200원 안팎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차 시행 시점에 이르러서는 지역 석유 가격이 2000원선까지 올라섰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약 1999원, 경유는 약 1994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ℓ당 휘발유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을 넘어선 2006원을 기록 중이며, 경유 역시 2002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직접 반영된 결과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통비용과 주유소 운영비, 마진 등이 더해지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공급가격 상한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결국 최고가격제는 상승 속도를 일부 조절하는 역할에는 그치고, 체감 가격 자체를 낮추는 데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괴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미 오른 공급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여서 최종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까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국제유가 상승과 유통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정책과 시장 가격 간 괴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HD현대삼호, 협력사 상생에 6억8000만원 지원

전남형 조선업 지역상생 지원사업 출연… 안전장비 등

HD현대삼호가 원·하청 격차 완화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팔을 걷었다.

HD현대삼호는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영암군이 추진하는 '전남형 조선업 지역상생 격차완화 지원사업' 중 조선업도약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총 6억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핵심은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과 산업 안전 강화다.

우선 숙련재직자 장려금 지원 사업은 사내 협력사에 근무하는 만 60세 미만, 근속 7년 이상 근로자 최대 1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HD현대삼호가 4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2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안전 분야 지원도 병행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낙상 위험이 높은 작업자와 안전 담당자에게 스마트 에어백 조끼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각각 100세트씩 지급한다. 이 사업에는 HD현대삼호 2억3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이 투입된다.

참여 기관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전남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별도 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정부·지자체·협력사가 각각 100만원씩 적립해주는 미래공제사업과, 6개월간 170명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거주비를 지원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 진행된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협력사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마제스티 솔루스 EDGE' 출시 금호타이어, 구매 고객에 경품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 EDGE'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마제스티 솔루스 EDGE를 비롯해 마제스티X 솔루스를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상품권을 오는 5월 30일까지 증정한다.

또 6월까지 제품 구매 후기를 등록한 고객 중 선정을 통해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한 '마제스티 솔루스 EDGE'는 금호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능 전반을 한층 끌어올린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타이어프로 홈페이지 및 타이어프로플러스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마제스티 솔루스 EDGE'는 금호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능 전반을 한층 끌어올린, 완성도가 진화된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다. 핵심 기술로는 비대칭 패턴 디자인 및 고강성 센터 블록 설계를 통한 일관된 주행 안정성, 소음 저감 가변피치, 블록 구조 안정화 설계로 구현한 뛰어난 정숙성, 고함량 실리카 레진 컴파운드 적용으로 강화된 사계절 제동 성능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17인치부터 20인치의 고급 세단과 수입차 등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에 적용 가능하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히트펌프·에어컨, 소비자 만족도 1위

이탈리아 127개 산업 분야 1350개 브랜드 64만명 대상

삼성전자의 히트펌프와 에어컨 등 냉난방공조 제품이 독일 품질금융연구소(ITQF)가 실시한 '최고의 가격대비 품질 2026' 조사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ITQF는 2021년부터 매년 이탈리아에서 해당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127개 산업 분야의 135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 약 64만명의 리뷰 데이터를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신설된 히트펌프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에어컨 부문에서도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먼저 히트펌프는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실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난방 솔루션으로,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드는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유럽 시장에서 차세대 가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EHS 올인원'은 실외기 한 대로 공기 냉난방과 바닥 냉난방, 급탕까지 제공한다.

특히 공기와 물을 동시에 활용해 공기와 바닥 냉난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또 여름철 냉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실외기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열 회수' 기능을 탑재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 제품은 유럽의 주택 외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설치 편의성을 갖추고,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영하의 날씨에도 최대 65℃의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고, 영하 25℃의 혹한기에도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무풍 에어컨은 사용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무풍 기술에 사용자 생활 패턴과 공간에 최적화된 냉방 환경을 제공하는 AI 기술을 접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쾌적한 온도로 맞춤 운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과 진공청소기 부문에서 각각 6년 연속,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생활가전 전반에 걸친 브랜드 저력을 입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히트펌프 보일러를 이달부터 국내에도 출시하며 국내 난방 전기화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

'상습 체불' 사업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

광주·전남, 13명·6억2100만원… 형사처벌도 가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며 체불 관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명단에는 광주·전남지역 13명의 사업주가 포함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13명(광주 6명·전남 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총 6억2100여만원(광주 2억6200여만원·전남 3억5900여만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곳(광주 1곳·전남 4곳), 건설업 5곳(광주 2곳·전남 3곳),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곳,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곳,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곳 등이다.

실제 전국 각지의 현장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A씨는 지난 3년간 24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1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회의 유죄 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또 A씨는 여러 공사 현장에 수억원대의 미지급 공사 대금,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해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금을 돌려막는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경영하기도 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026년 4월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삼성전자, '월렛 여행' 출시… 일정 관리 체계화

삼성전자가 갤럭시 사용자의 여행 경험을 혁신하는 '삼성 월렛 여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 월렛 여행'은 비행기 탑승권, 호텔 예약 정보, 테마파크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다양한 여행 관련 정보를 '삼성 월렛' 앱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여러 앱과 플랫폼에 각각 분산돼 있던 여행 정보들을 '삼성 월렛 여행' 기능에 하나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사용자는 삼성 월렛 내 여행 항목을 생성한 후, '트립 타임라인' 기능을 활용해 시간과 위치기반으로 분류된 여행 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세부 일정을 추가할 수 있고, 메모 기능을 활용해 관련 링크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여행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호텔 및 항공권 예약 확정서, 액티비티 투어 티켓 등을 '삼성 월렛'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더욱 폭넓은 여행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